

“20세기초 일본의 평화관과 吉野作造(요시노 사쿠조)”

* 石田雄 著, <日本の政治と言葉> 下 ‘平和と 國家’ 중 전편, 서장-제2장 (東京大學出版社, 1989)

□ 서장, ‘평화’의 의미론의 의의

- 평화의 다의성 - 국가전쟁목적을 정당화하는 대의명분 vs 절대 非戰이라는 개인의 원리로서 평화주의
 - 근대국가는 정당한 물리적 폭력행사를 독점, 대외적 주권행사로써 조직화된 폭력행사로써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평화를 위한 전쟁’이 실제 일어나는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군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군비’라는 현실을 고려.
 - 이를 적극 지지하는 ‘거국일치’라는 애국주의에 의한 동조적 태도에서 수동적 묵종, 도피적 태도 사이.
- 광의의 평화주의 : 3개의 유형
 - I) 전쟁에 반대. 수동적 태도. 묵종적 타입의 소극적지지
 - ii) 전쟁 반대, 현세거부, 현세 도피
 - iii) 적극적인 현세 통제. 완전한 평화주의. 소수자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 섹트형의 전형으로서 재침레파. 内村鑑三 : 비전론은 무교회주의자와 연계.
- 평화를 위한 전쟁 → 절대비전의 평화주의에 이르기까지 평화의 의미 분석 시도
 - 다수의 일본인이 전쟁에 이끌려가는 과정, 열렬히 지지하는 과정
- 평화라는 단어가 당시 어떻게 사용되고 이해되었는가를 의미 내용의 분석
 - 문화별 평화관념의 특질을 비교하기보다, 일본에서 평화관념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가를 비교 관점에서 접근함. : 일본은 和의 전통을 기초로 동조성이 강함. 국내 일치를 이루기 위해 전쟁반대가 곤란해짐.
 - 문화적 유형이라는 매크로(거시적) 관점에서의 고찰을 미크로(미시적)인 역사발전의 분석에 의해 보충.
- 근대국가가 형성기 이후 나타나는 평화의 兩義性
 - 근대주권국가 성립이후 주권의 내용을 정당화하는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이 있음. 근대국민국가가 내셔널리즘의 고양과 더불어 대외전쟁에 종사하는 가능성을 보여줌.
 - 이러한 근대국가에 의한 정당한 폭력 행사로서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로 부여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의 양심에 입장에서 절대 비전의 평화주의가 대항하는 양상이 공통된 현상임
- 메이지이후 일본에서 평화의 양의성이 선명히 의식된 것은 러일전쟁의 경우가 예외적임. 그 외는 전체적으로 다의성이 불명확해짐. 평화의 다의성의 양극이 ‘舉國一致’라는 형태로 중간에 수렴됨. 결과적으로 평화를 위한 전쟁을 용이하게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함.
 - 문화적 전통을 하나의 요소로 검토함. 일본의 문화적 전통중에 집단적인 ‘和’에 ‘평화’가 결합되는 가능성이 강함. 개인의 양심이 집단의 동조성에 대항하여 주장하는 것이 곤란했음.

□ 제1장, ‘동양평화’를 위한 전쟁과 비전론

1. Peace의 번역로서 ‘평화’라는 라는 새로운 문자의 도입

- 1882년 <평화>라는 제목의 잡지가 平和社에서 발행됨. 北村透谷
 - 나카에조민의 <삼취인경륜문답> (1887) 양학신사의 ‘만국평화의 이야기’
 - 日本平和會(1889) : 기독교적 입장에서 평화주의 주장. 평화주의는 영원의 기독교 신앙에 기초함
 - <평화> 잡지 : 기독교적 평화주의 + 전통적 요소 혼재. 일본에서 최초의 정기간행물. 평화문제에 대한 관심 유발

2. '동양의 평화'를 위한 청일전쟁과 '국론일치'

- 청일전쟁 개시후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측면이 지배적이 됨.
 - 대청 선전포고시 이토 히로부미 총리대신이 1894.10.10. 임시의회에서 이 전쟁이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함.
 - 당시 총리대신의 연설문: 평화와 관련되어 독립이 부각됨.
 - '동양평화'는 관념적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독립과 안전을 유지하고 국제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직접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청과의 긴장관계에서 위치지워지는 양상을 띠.
 - 이토의 동양평화 : 일본의 국가이익을 지키며, 일본을 동양의 맹주로 하기 위한 전쟁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의식됨.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이익선 → 정치가에 의한 공식 발언 → 논단의 일반화됨
 - 内村 : 청일전쟁을 평화의 진보를 위한 적극적 목적을 지닌 것으로 봄. 청일의 전쟁을 문명과 야만의 전쟁이라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생각과 완전 동조함.
- 동양평화, 문명, 진보를 위한 전쟁이라는 정당화의 논리에 대해 비전평화주의가 자기주장을 내세우지 못함. 국민국가로서 최초로 체험한 대외전쟁을 위한 '국론일치'의 분위기 형성.
 - 국내의 동조성이 강한 것은 '泰平의 天下'를 위한 것이라는 측면 강함. 지배층의 중요 관심사가 됨
- 서구 열강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부국강병은 평화의 시작'.
 - 丸山 : 무장적 평화의 불생산성을 지적. 강자의 권리 언급. 칸트의 영구평화론 언급.
- 평화의 착란요소로서 제국주의를 규탄함.
 - 러일전쟁시기 비전론의 전개, 평화의 양의성을 명확히 보여줌.
 - 秋水 : 평민신문 창간. 평민주의, 사회주의, 평화주의 언급.

3. 비전론과 동양평화를 위한 러일전쟁 : 평화의 양의성의 현재화

- 도쿠도미 소호(徳富蘇峰) : 조선문제는 일본 독립문제. 일본제국 생존의 문제.
- 평민신문: 전쟁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언급.
- 러일전쟁의 정당화는 평화의 양의성을 의식시킴.
 - : 제국의 안전. 복수주의 거론. 당시 비전론은 기독교 신앙에 근거, 사회주의의 논리 + 보편주의적 시점에서 전쟁의 본질에 대한 비판을 전개.
- 비전주의의 제1유형: 기독교신앙, 인도주의 입장. 조직적 살인을 행하는 전쟁을 철저히 부정하는 점에서 보편주의적임. 内村이 해당
 - 또다른 유형 - 사회주의자. 계급 분석에 기초하여 전쟁본질 비판, <평민신문>
 - 두 입장의 공통점: 일러양국의 평민의 악수를 제창. 국제적 연대를 지향. 적국의 비전론자와 연대 가능성. 톨스토이주의또는 톨스토이의 러일전쟁 비판에 연대 또는 공감을 표명함.
 - 비전론의 발표 공간이 제한됨.
- 주전론의 반격: 비전론의 존재 의식하면서 평화를 위한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 개발
 - 평화는 이상, 전쟁은 현실. / 평화는 목적. 전쟁은 수단.
 - 활력주의에 의한 전쟁 예찬: 국방은 국가생성발전의 기본적 활력의 작용.
 - 전쟁이 도덕을 진기하는 기능 수행
 - 비전론자는 전쟁에 요청되는 도덕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비판함.
 - 비전론의 외래성을 이유로 공격함.
- 비전론이 당시 여론에 큰 충격 줌
 - 비전론의 분류 : 이상적 이유, 현실적 이유, 절대적 개인주의의 이유로 3구분함.
 - I) 형세상 전쟁을 부정, ii) 주의에 의해 전쟁을 부정, iii) 본래 개인 성격에 의해 전쟁을 부정.

- 주전론의 반응: 상대적 비전론은 설득함. 절대적 비전론은 배제함. 애국주의라는 특수주의적 가치를 지탱하는 국민공동체의 '거국일체'가 비전론을 배제하는 결정적 요소가 됨. 애국주의적 풍조에 동조, 사회의 평화 유지: 국내의 평화관이 실제로 일본에서 평화를 위한 전쟁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초가 됨

- 無戰論이 대두함.

o 도쿠도미 소호 : 평화설, 弱國主意, 비전론 배격.

- 20세기 적자생존을 수행하는 유일 조건 언급. 정의의 깃발은 동양평화. 20세기 상황을 무자비한 제국주의 국가간 항쟁으로 인식함. 그 사이에서 강국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평화를 위한 전쟁을 주장.

□ 제2장, 세계평화의 추세와 민본화

1. 세계평화의 추세와 평화의 양의성의 소멸경향

- 러일전쟁종결이후 1920년대까지, 제1차세계대전 시기, '세계평화'에 대한 관심 증대. <태양> 잡지
- 주권국가간의 무장적 평화, 세계적 세력균형을 중심으로 하는 것임.
- 군축 또는 군비현상유지론이 대두. : 대일본평화협회.
- 당시 일본의 평화론: 중국에 대한 21개조 요구에 대한 비판이 없음. 무장적 평화에 경사되어 제1차대전전 후 일본에서 평화의 의미가 수렴됨에 따라, 평화의 양의성이 명확해지지 않음.
- 영미 본위의 평화주의를 배격함.
- 인도주의의 배후에 이기주의가 포함. 평화의 이면에 현상유지. 이에 대해 일본의 주장 관철 노력. 거꾸로 일본의 팽창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됨.

o 近衛의 주장에 동조: 1919.1.1. <태양> '항구평화의 제요건'에서 발표논문들. 인종평등(황백인의 무차별 대우)이라는 주장,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구미의 대국으로 높이기 위해, 군비의 강화에 의해 아시아에서 일본의 특수이익을 세계로 인정받자는 주장 대두.

- 영미본위의 평화주의를 비판하는 것과 별도로, 영미 등 열강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의 중국과 아태지역에서 특수이익을 주장함. 군비의 강화를 주창함.
- 전후에 영구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비합병, 비배상, 국제연맹군비제한, 경제교통의 장, 경제기회의 균등을 수립할 것을 요구함. 나아가 일본이 유색인을 대표하여 세계무대에서 발언함.
- 보편적 기준을 일본 자신에 적용시킨 견해. 국가이익 중심의 대외강경론앞에 평화론이 영향력 상실

3. 軍國化와 民本化 - 대정데모크라시와 평화관

o 대정시기 민주주의화(민본화)와 평화주의의 상관관계 : 1918년 <중앙공론> . 4개 유형화

i) 軍國化에서 민본화가 역사적 진화임 ii) 양주의의 충돌을 우려.

iii) 민본화에 의한 군국화를 현실화함. 국가총동원의 준비. 민본화에 의한 거국일치가 필요

iv) 吉野作造(요시노 사쿠조) : 군국주의와 상대립하는 것은 평화주의이며, 민본주의와 상대립하는 것은 관료주의라고 봄. 민본주의와 군국주의의 양립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경고함.

- 당시 일본의 '국민의 신념'을 전제로서 보면, 대중의 배외적 심정이 민본화에 의해 동원되어질 가능성이 큼. 1922년 요시노는 '일본에서 특별히 평화사상의 도입이 어려운 이유'에서 일본에 특유한 反평화사상의 전통으로서 막말의 배외사상등을 언급함. 이러한 反평화사상의 전통위에 대중화 현상이 진전됨에 따라, 전통적 배외주의와 대중적 배외주의라는 이중의 의미에서 배외주의적 심리가 고양진전되어질 위험성이 생김. 대정시대에는 요시노의 예견이 예외적임. 논단에는 낙관주의적 문화주의, 교양주의가 지배함.

o 주권국가를 전제로 하는 무장적 평화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보인 낙관적 평화관이 관념적으로 문단에 지배적인 시기에 대중의 배외주의적 심정을 동원하는 군국화의 기초가 형성되어짐. 국민교육 수준에서

o 요시노: 일본의 특유한 반평화사상의 전통이 군부라는 정당화되는 폭력을 독점하는 국가기관에 의해 장악되어져 평화주의에 직접적 도전이 됨.

2. 이규수, "민본주의자, 요시노 사쿠조의 조선 인식", <역사비평> 2009년 가을호 (통권 88호, 2009.8)
3. 김경일, "요시노 사쿠조의 평화론에 대한 고찰- 다중적 평화인식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日本文化研究> 第52輯, 2014.10, pp.31-51.